

부활의 신학 (롬 1:1-4)

[요약 설교 3편]

박 회 천

- 서울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
- 충신대학신학대학원 교수 (설교학)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는가?

1.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롬 1:4)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과연 어김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분명히 확정되었다는 뜻이다.

2. 우리를 의롭게 하였다(롬 4:2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만 하시고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한 죄인으로 죽은 것밖에 안 되니 한 죄인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남을 의롭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고전 15:17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한 죄인으로 죽은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3. 우리의 생활을 거룩하게 한다(고전 15:32~34)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는 “죽으면 끝”이라고 하여 방탕한 생활을 사나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는 거룩하게 산다.

생명의 종교 (요 5:24~29)

요 5:24~29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3 가지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1. 근본적 삶(24)

예수님을 믿는 자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하신 것은 곧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근본적인 삶을 뜻한다(요 3:14).

2. 영혼의 삶(25~27)

25절의 죽은 자들은 영혼이 죽은 자들을 뜻하는데 영혼이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 롬 8:10, 베전 4:6도 이 사실을 말한다.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

3. 육체의 삶(28, 29).

장차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의 죽었던 몸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된다.

결 론

그러니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근본적인 삶을 얻고, 그 영혼이 살고, 장차는 몸까지 살게 되는데 이는 다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가능해진 일이다. 우리 다 부활의 주님을 계속 잘 믿다가 주님 오시는 날, 생명의 부활을 얻어 천국에서 길이 생명을 누리자.

우리의 부활 (고전 15:35~44)

우리의 부활은:

1.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42)

현재의 우리의 몸은 죽고 썩어질 몸이지만 장차 부활하는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한다.

2.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43)

현재의 몸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롬 7:19) 욕된 몸이나 장차 부활하는 몸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만 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3.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43)

현재의 몸은 병 때문에 고생하는 약한 몸이나 부활할 때에는 병 때문에 다시는 고생 안하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산다.

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44)

현재의 몸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과로하면 피곤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의 몸이나 장차 부활할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안 마셔도 목마르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안 받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결 론

이러한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앞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는 앞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자.